

《紅樓夢》과 科學文化*

金曉民**

<목 차>

1. 논의에 앞서
2. 과거문화의 반영 양상
3. 高鶚의 續作과 과거문화
4. 傳播와 評點, 續書 문제
5. 맺음말

1. 논의에 앞서

중국 역사상 명청시대는 과거제도가 가장 정교하게 발전하고 전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심원한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다. 과거제도는 그 제도적 특성상 당대의 문학 영역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왔는데, 명청시대에 와서는 소설과 같은 주변 장르까지도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게 된다. 이 시대의 과거제도는 단순한 시험제도를 넘어 가치관, 교육, 글쓰기, 신분질서, 출판문화, 풍속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았기에, 재현성이 강한 장르인 소설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양자의 연관성이 증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소설 작가들이 장기간 과거시험을 위한 교육을 경험하고 과거시험의 길을 걸었던 바, 과거문화가 그들의 작품 속에 다양한 방식과 형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05-J01901)

** 高麗大學校 世宗캠퍼스 中國學部 副教授

로 투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설 속의 인물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나, 반대로 과거시험에 거듭 실패하는 인물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두드러진 요소이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당시 과거시험, 나아가 과거문화에 대한 작가와 독자들의 관념이 배어있으며, 이 같은 문학현상은 또 그 자체로 넓은 의미에서 과거문화의 일부를 이룬다.¹⁾

이 같은 소설과 과거문화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볼 때 《紅樓夢》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우선 작가 曹雪芹만 하더라도 그 생애와 관련하여 많은 것이 배일에 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역시 당시 과거문화와 일정한 관련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설근의 과거시험 참가에 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부유한 특권층이자 학자풍 집안 출신이었던 그 역시 당시 여느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과거시험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스승님이 이끌어 주신 은덕을 뒤로한 채, 오늘까지 한 가지 재주도 익히지 못하고 반평생을 방탕하게 살아오며 허송세월한 죄를 모두 적어 한 편의 책으로 엮어...”²⁾라는 《홍루몽》 제1회의 언급에서 그 같은 사정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舉業이 교육의 핵심이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가르쳐준 은혜’라는 것과 ‘이끌어준 은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업과의 관련성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며, ‘재주’라는 표현도 실질적으로 팔고문과 같이 부귀공명을 얻기 위한 재주를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³⁾ 물론 이 점은 작품 가운데 賈寶玉의 글공부와 관련된 많은 구체적 내용들이 뒷받침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작품 속 가보옥에게서 드러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설근은 소년 시절 가문이 몰락하면서 부친으로부터 가업의 부흥을 위해 거업에 힘쓸 것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해 入股

1) 과거문화와 명청소설의 이 같은 관계와 그 전반적인 관련양상에 관해서는 줄고 《明清小說與科學文化的關係》(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을 참고할 수 있다.

2) “背父兄教育之恩，負師友規訓之德，以至今日一技無成，半生潦倒之罪，編述一集…….” 본고의 《홍루몽》 원문 번역은 기본적으로 최용철·고민희 역 《홍루몽》(나남, 2009)을 따랐음을 밝힌다.

3) 李廣柏, 《曹雪芹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8. 62쪽 참고.

거업을 염오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⁴⁾ 또 조설근이 북경으로 이주한 후 20세에 國子監 貢生이 되며, 이후 30여 세 무렵에는 만주족 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인 右翼宗學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⁵⁾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과거문화가 팽배한 시대적 환경 속에 처해 있던 조설근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과거문화와 상당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⁶⁾

작품 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홍루몽》에서 과거문화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아니지만, 세심히 관찰해보면 작품 속에서 과거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작품의 성서 과정 및 전파, 수용 등의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문제는 한층 더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언급이나 고찰에 머물러 있어, 《홍루몽》과 과거문화의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가 의도하는 바는 단순히 작품 가운데서 과거문화적 요소들을 찾아내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요소들이 지니는 의미들을 밝히고 과거문화라는 맥락 속의 독법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작품 속에서 과거문화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양상과 그 의미를 개괄하고, 또 그러한 양상의 형성에 고악의 속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의 문제를 고찰하며, 나아가 작품의 전파, 평점, 속서 등의 측면과 과거문화의 관련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4) 吳世昌, 《紅樓探源》, 北京出版社, 2000. 202쪽 참고. 한편 작품 속에는 旗人 과거제도의 특수성도 어렵곳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청대 과거시험에서는 기인이 향시, 회시에 참가하면 반드시 먼저 활쏘기와 말타기 시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작품 가운데 가보 옥뿐 아니라 가부 자제들의 활쏘기 훈련에 관한 언급들이 간간히 보이는 것은 이 같은 배경과 관련이 있다. 楊連民, 王凌雲, <試論《紅樓夢》的科學觀>, 《山東社會科學》, 2004, 第7期, 84쪽 참고.

5) 吳世昌, 같은 책, 202-203, 206쪽 참고.

6) 鄧雲鄉은 《홍루몽》 제78회에 보이는 사서오경과 고문 및 팔고문 공부에 관한 가보옥의 견해를 근거로 조설근이 거업 전반에 관해 상세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팔고문 읽기와 쓰기에도 매우 익숙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였다.(《清代八股文》,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252-255쪽 참고)

2. 과거문화의 반영 양상

먼저 본 절에서는 현대의 통행본⁷⁾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과거문화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문제는 크게 科擧功名과 관련된 賈府의 중시 풍조와 교육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 대한 가보옥의 비판적 태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측면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작품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갈등 축으로 기능하며 대비적 구도를 보인다.

과거공명에 대한 중시 풍조는 우선 풍속의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설근이 살았던 당시에는 과거공명을 중시하는 관념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그 같은 관념은 다양한 풍속으로 일상생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작품 속에 보이는 몇몇 장면들에서 가부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제7회에서 王熙鳳은 秦可卿에게 ‘壯元及第’의 도안이 새겨진 작은 금덩이를 선물로 보내는데, 여기에는 진가경의 남동생 秦鐘의 과거급제를 바라는 축원이 담겨있다. 제8회에서 賈母가 문운과 공명을 축원하는 금으로 만든 魁星神像(金魁星)을 진중에게 선물로 주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관념이 드러난다. 또 제5회에서 묘사되는 진가경의 내실에는 글공부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그림인 燃藜圖와 학문과 문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련이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역시 과거공명에 대한 중시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로 보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寧國府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가보옥의 과거공명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가보옥의 입신출세에 대한 부친 賈政의 기대는 작품 곳곳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종종 기대

7) 본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주본이라 할 수 있는 人民文學出版社本 《紅樓夢》(1996, 제2판)과 이를 우리말로 옮긴 최용철·고민희 역 《홍루몽》을 통행본의 기준으로 삼는다.

차원을 넘어 강압의 성격을 보인다. 그밖에 王夫人, 薛寶釵, 史湘雲, 花襲人 등 주위 여성인물들도 그러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가부의 과거공명 중시 분위기는 주인공 가보옥과의 관련성 속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두드러지게 된다. 한편 제118회에서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그날부터 공부를 그만둔다 해도 황제의 은혜와 조상의 은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薛寶釵의 말에 가보옥도 반응하는 대목이나, 제119회에서 舉人에 급제하면 그것으로 일생의 큰일도 끝나는 것이고 이제까지의 불효도 덮여지는 셈이라는 보옥의 말에서 과거공명을 중시하는 집안의 관념, 나아가 과거공명 자체의 세속적 가치와 중요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가치관과 과거공명 중시 풍조는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조로 나타난다. 가령 보옥은 아직 서당에 가기 전인 서너 살 때부터 이미 賈元春에게서 글을 배워 몇 권의 책을 떼기도 하고 수 천 자를 암송하기도 한 것으로 묘사되는데(제17-18회), 이는 과거시험을 목표로 하는 당시 교육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한편 제7회에서 제9회 사이에 묘사되는 家塾은 그 자체로 가문의 교육에 대한 관심, 나아가 과거공명에 대한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가보옥이 가숙에 보내지는 것 역시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는 가보옥이 가숙에서 배울 주요 내용을 지정해주는 賈政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나타난다.

“무슨 《시경》이니 고문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쓸모없는 걸치레에 불과하다. 그저 ‘四書’ 하나만 전부 확실히 이해하고 닳도록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甚麼《詩經》、古文, 一概不用虛應故事, 只是先把《四書》一齊講明背熟, 是最要緊的.)”(제9회)

주지하듯 청대 과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팔고문이었으며, 팔

8) 이 단계에서 가보옥이 배운 것은 《三字經》, 《百家姓》, 《千字文》, 《神童詩》 등과 같은 기초적인 계몽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識字 단계에서 시작하여 사서(오경)를 외우고, 이어서 팔고문 쓰기를 배우는 것이 명청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鄧雲鄉, 같은 책, 제6절 <八股與私塾教育> 참고.)

고문 가운데서도 四書文이 실질적으로 등락을 판가름하는 관건이었다.⁹⁾ 가정이 가보옥의 글공부에서 사서만을 특별히 강조하고 범위를 한정된 것은 교육의 목적이 과거시험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사서 외에 심지어 오경의 하나인 《시경》이나 전통 문장인 고문까지도 쓸모없는 잡학으로 치부하는 가정의 태도에서 과거시험만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세속적인 교육관이 엿보인다.

한편 제9회에는 가숙 훈장 賈代儒가 학동들에게 칠언대구의 對聯 숙제를 내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글자 수나 내용, 평측 등에 있어서 대구를 기본으로 하는 팔고문 쓰기를 위한 기본 훈련의 하나로, 역시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의 일환이다.¹⁰⁾ 가보옥이 특히 대련을 잘 짓는다는 언급과 더불어 大觀園 낙성을 계기로 賈政이 가보옥의 대련 짓기를 테스트하는 대목(17-18회)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서에 대한 공부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팔고문 쓰기를 위한 예비 훈련을 거친 후인 제81회에 가서는 賈政이 보옥에게 오로지 팔고문을 익히는 데만 힘쓰도록 하는데, 이는 그간의 기본적인 공부를 기초로 삼아 본격적인 과거시험 공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과거시험 위주의 교육에 대한 이 같은 강조는 제81회에서 賈政이 보옥에게 1년의 기한을 주면서 그 때까지 팔고문 쓰기에 좋은 결과가 없으면 자식으로 치지도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과거시험 공부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인 강요로 인해 가보옥에게 賈政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그리하여 가보옥은 부친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만 들어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느끼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는 상당부분 천성적으로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가보옥의 개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양자의 모순적 관계를 통해 과거문화의 요소는 작품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www.kci.go.kr

9) 王德昭, 《清代科舉制度研究》, 中華書局, 1984, 40-41쪽 참고.

10) 鄧雲鄉, 같은 책, 100-102쪽 참고.

물론 거업과 관련한 賈政의 과도한 압력에 대한 보옥의 거부감은 단순히 압박에 대한 개인적 반항심에 그치는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팔고문을 중심으로 한 거업 자체의 문제점과 거업을 통한 입신출세만을 추구하는 남성세계의 속물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¹¹⁾

거업에 대한 가보옥의 부정적 태도는 제82회에서 그가 林黛玉에게 말하는 다음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

“무슨 공부 얘기를 꺼내고 그래! 난 그따위 도학자들의 말이 제일 질색이라고. 더 가소로운 건 팔고문이야. 그걸로 공명을 따내서 그럭저럭 밥이나 먹고 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성현을 대신해 말을 한다’고 떠들 건 뭐람? 좀 나은 것들이라 보아야 고작 경서 구절들이나 읊어다 짜 맞춰 글을 쓸 뿐이고, 더욱 웃기는 것들은 머릿속에 아무 것도 들지 않아서 횡설수설 해대며 엉망진창으로 쓰면서도 박학하다고 자부하는데, 그게 무슨 성현의 도리를 밝히는 거야! 요즘 아버지가 말끝마다 나한테 그 따위 것을 배우라고 해서 감히 거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누이까지 지금 공부 얘기를 해!(還提甚麼念경서我最厭這些道學話. 更可笑的是八股文章경서拿他誑功名混飯吃也罷了경서還要說代聖賢立言. 好些의경서不過拿些經書湊搭湊搭罷了: 更有一種可笑的경서肚子裏原沒有甚麼, 東拉西扯, 弄的牛鬼蛇神, 還自以爲博奧. 這那裏是闡發聖賢的道理. 目下老爺口口聲聲叫我學這個, 我又不肯違拗, 你這會子還提念書呢!)”

여기서 가보옥의 비판의 화살은 거업, 그 가운데서도 특히 팔고문을 겨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로지 출세를 위한 수단이자 空疎한 말들로 채워지는 틀에 박힌 글에 지식인들이 매몰되어 있는 현실 문제가 날카롭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가보옥이 세상에 ‘四書’말고는 대부분 멋대로 만들어낸 글들뿐이라고 한 것이나,¹²⁾ 세상에는 明明德, 즉 《대학》을 제외하면 책 같은 책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옛사람들이 성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멋대로

11) 이런 점에서 가정과 가보옥의 갈등관계는 낡은 전통적 가치와 관계들을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작가의 본질적 문제의식과도 맞는 문제이다.

12) “除《四書》外, 杜撰的太多.”(제3회)

끌어다 묶어낸 것들뿐이라고 말하는 것,¹³⁾ 또 사서를 제외하고 다른 책은 모두 불살라버린 행위¹⁴⁾ 역시 팔고문에 대한 가보옥의 비판적 태도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다. 여기서 사서 또는 《대학》 이외의 것이 주로 가리키는 것은 과거 시험을 위한 팔고문 선집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¹⁵⁾

가보옥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공부하여 출세하려는 사람을 ‘녹을 파먹는 벌레 같은 놈(祿蠹)’이라고 욕하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공명옥의 노예가 된 남성사회를 혐오하는 경향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게 된다. 가보옥이 賈雨村이 찾아오는 것조차 언짢아하는 대목이나(제32회), 높은 관을 쓰고 관복을 입고 축하인사를 드리거나 문상하러 오가는 일을 특히 혐오한다는 언급(제36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우촌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팔고문을 중심으로 한 거업, 공명옥의 노예가 된 남성사회에 대한 가보옥의 비판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작가 조설근의 사상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터인데, 이 같은 비판적 사고의 대척점에 형상화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가우촌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가우촌은 가문의 몰락을 딛고 進士에 급제하여 출세한 관료로, 이른바 팔고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정예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부귀공명의 노예,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출세와 성공, 사리사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관료지식인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특히 그가 과거시험에 매진할 때 치국평천하가 아닌 오로지 개인의 부귀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물형상의 설정은 팔고 과거제도 자체와 그것이 양산

13) “只除明明德外無書，都是前人自己不能解聖人之書，便另出己意，混編纂出來的。”(제19회)

14) “除《四書》外，竟將特別的書焚了。”(제36회)

‘사서’ 문제와 관련하여 張錦池는 가보옥이 불태운 책들에는 당연히 程朱의 저작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또한 가보옥이 ‘明明德……’ 운운하는 것을 근거로 사서 자체에 대해서도 완전히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張錦池, 《紅樓夢考論》, 黑龍江教育出版社, 1998, 436쪽 참고.) 한편 袁世碩은 가보옥이 말하는 ‘明明德’을 《대학》을 가리키는 말로 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명제로 풀이하며 李卓吾 사상과의 친연성을 지적한 바 있다.(〈賈寶玉心解〉, 《中外學者論紅樓》, 北方文藝出版社, 1989, 300-301쪽 참고.)

15) 吳世昌, 같은 책, 361쪽 참고.

하는 관료사회의 문제점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팔고 과거제도에 대한 작품의 비판적 경향은 기본적으로 그 같은 제도문화의 억압성과 세속성에 대한 혐오로 특징지어진다. 철저하게 제한된 학습 내용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닫힌 교육과 부귀공명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인성의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그 안에 함장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과거제도는 인간의 자유로운 개성을 억압하고 순수함을 오염시킨다는 매우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과거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다른 많은 명청소설과 문제의식의 층위에서 구별되는 지점이다. 많은 여타 작품들이 작가의 회재불우 정서와 결합되어 과거시험의 폐단과 부패를 폭로하는 사회고발적 층위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홍루몽》과 거의 동시대에 과거제도 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운 《儒林外史》의 경우, 팔고 과거제도가 지식인사회 전체를 황폐화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해부했다는 점에서 깊은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문제의식의 초점이 주로 사회적 층위에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의 인성적 층위에 문제의식이 맞춰져 있는 《홍루몽》의 경우와 그 경향을 달리한다. 곧 유림외사는 과거제도로 인해 타락한 지식인사회를 재건할 새로운 질서나 삶의 양태에 고민이 집중되어 있다면, 《홍루몽》의 경우는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성과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인성에 대한 추구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의 회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젊은 여성들의 세계가 미화되고 여성성이 강조되는 것은, 여성의 세계가 과거시험을 통한 입신양명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드는 남성 세계와 상대적인 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보옥이 과거공명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지 않는 임대옥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기로서 사랑을 느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보옥과 젊은 여성들이 대관원에서 海棠詩社를 결성하는 등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시 쓰기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역시 팔고문 교육 중심의, 또는 팔고문에 의해 오염된 남성세계의 그것에 대한 대안적 의미

로 읽을 수 있다.

3. 高鶚의 續作과 과거문화

《홍루몽》과 과거문화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고악의 속작이라는 요인이다. 《홍루몽》은 성서과정과 판본 문제가 매우 복잡한 작품이지만, 그 판본은 단순화시키면 크게 초기 필사본인 脂本 계열과 고악이 후반 40회를 이어 써 출판한 程本 계열로 나뉜다. 지본 계열이 조설근의 원작에 가깝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본 또한 고악의 속작을 통해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대량 출판되어 현대까지 100년 이상 실질적인 통행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님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후반 40회가 기본적으로 전반 80회의 내용적 흐름을 잇고 있고, 후반 40회 관련 조설근의 일부 원고가 속작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 40회의 상당부분은 고악의 속작을 통해 개작,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 역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악의 변개와 첨가 요소들을 살피고 그것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은 수많은 텍스트들의 집합으로서 '홍루몽'과 과거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할 터이다.

과거문화와 관련하여 후 40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가보옥이 결국 향시에 참가하여 7등으로 거인에 급제한다는 설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을 위해서 속작자는 거업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과거시험 공부를 등한시했던 가보옥을 어떻게 해서든 거업에 힘쓰게 만드는 방향으로 서술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가보옥의 글공부에 대한 賈政의 강압은 후반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향에 결

림돌이 되는 요소들은 그대로 방치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악은 기존 전만 80회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제78회의 다음 대목을 삭제한 것이다.

요즘 들어 賈政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상의 명리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다. 사실 가정도 천성적으로 시와 술을 좋아하고 거리낌 없이 자유로움을 누리려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다만 자제들 앞에서는 정색하고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인간형이었다. 요즘 보옥을 보면 비록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그런대로 해석하고 비평을 가하는 것을 보고 조상을 욕보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조상을 생각하면 모두들 이와 같으셨다. 비록 과거시험 공부에 정성을 다하긴 했어도 한 분도 빛을 발해 본 적이 없었으니 그것도 생각하면 가씨 가문의 운수라거나 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지금 모친이 보옥을 끄찍이 총애하고 있어서 억지로 과거시험 공부에 매진하게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보옥을 대하는 賈政의 태도도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賈環과 賈蘭에게도 과거 시험공부 외에는 보옥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좋겠다면서 매번 시를 짓게 할 때는 반드시 세 사람을 불러 함께 짓도록 하는 것이다.(近日賈政年邁, 名利大灰, 然起初天性也是個詩酒放誕之人, 因在子侄輩中, 少不得規以正路. 近見寶玉雖不讀書, 竟頗能解此, 細評起來, 也還不算十分玷辱了祖宗. 就思及祖宗們各各亦皆如此, 雖有深精學業的, 也不會發迹過一個, 看來此亦賈門之數. 況母親溺愛, 遂也不強以舉業逼他了. 所以近日是這等待他. 又要環蘭二人學業之餘, 怎得亦能同寶玉才好, 所以每欲作詩, 必將三人一齊喚來對作.)

이 대목은 초기 필사본 가운데 가장 내용이 충실하여 현대 통행본이 중요한 저본으로 삼고 있는 庚辰本을 비롯해 有正本(戚本) 등 脂本 계열 판본에는 들어 있으나 程本에 와서는 빠져있는 것이다. 가보옥의 거업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賈政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속작자의 의도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⁶⁾

16) 이와 관련하여 고악은 제17회에서 가보옥이 大觀園 낙성을 계기로 賈政의 명에 따라 대련을 짓는 이야기에서도 디테일을 수정하여 보옥에 대한 賈政의 태도를 엄혹한 방향으로 변경시킨 바 있는데(본고에서 언급하는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이러한 변경은 程乙本에서만 확인된다),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吳世昌, 같은

한편 고악은 가보옥이 晴雯을 위해 <芙蓉女兒誄>를 짓는 대목에서(제78회) 다음과 같은 가보옥의 독백 및 서술자의 말 역시 삭제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로지 공명이란 두 글자에 미혹되어 고품을 숭상하는 정신을 다 잃고 공명을 얻는 데 방해될까 걱정하며 시세에 따르느라 기를 쓰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공명 따위를 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세인들이 보고 칭송해 주는 걸 바라지 않으니……내 뜻에 맞춰 붓이 가는 대로 지어 보면 되겠다.’

……

보옥은 본래 글공부하는 선비가 아닌 데다 마음속에 이런 괴팍한 생각이 들어 있으니 어떻게 좋은 시문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자신은 마음 내키는 대로 지을 뿐이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奈今人全惑於功名二字, 將尙古之風一洗皆盡, 恐不合時宜, 於功名有碍之故, 我又不能罕那功名, 不爲世人觀閱稱贊……隨意所之, 信筆而去.……寶玉本是個不讀書的人, 再心中有了這篇歪意, 怎得有好詩好文作出來. 他自己却任意纂著, 並不爲人知慕.)

이 대목 역시 사실상 거업과 관련된 세속적인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 그리고 과거공명에 냉담한 가보옥의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에 삭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는 가보옥의 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그 강도 면에서 다소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¹⁷⁾

그런가 하면 후 40회는 그 첫 회(제81회)에서부터 가보옥이 다시 가속에 들어가 팔고문을 공부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속작 첫머리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장식한 데서 과거문화에 대한 고악의 태도와 중시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앞서 본 전반 80회 내에서의 중요한 변개는 바로 이러한 속작의 내용 전개, 나아가 이후 가보옥의 거인 급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실제로 후반 40회는 그 첫머리인 제81회를 시작으로 하여 제82회, 제84회,

책, 355-359쪽 및 張錦池의 《紅樓夢考論》(黑龍江教育出版社, 1998) 524-525쪽 참고.

17) 물론 제82회에서 가보옥이 임대옥과의 대화 중 팔고문 등을 비판하는 대목(앞 절 인용문 참고)처럼 후 40회에도 거업에 대한 가보옥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일부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조설근의 원작을 바탕으로 속작하는 데 있어서 원작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을 현실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97회, 제115회, 제118회, 제119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편폭을 들여 가보옥의 거업에 관해 언급,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보옥의 과거시험 공부 및 응시에 관한 가정의 훈계와 지시, 감독이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81회에서 가정이 가보옥에게 1년의 시한을 주고 팔고문 공부에 매진하도록 훈계하는 부분에 대한 姚燮 평점의 다음과 같은 언급 역시 이 같은 작품의 흐름을 잘 짚어주고 있다.

가정이 보옥에게 팔고문 공부에 힘쓰도록 다그침으로써 뒷부분의 거인 급제에 복선을 깔아주고 있다. 만약 보옥이 팔고문을 공부하는 대목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향시에 급제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 작품이 디테일 묘사 부분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필묵이나 빈틈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政老責寶玉於應試文章用功。先爲後文中鄉魁埋根。若不詳敘寶玉學制藝一段。則鄉試何自而中耶? 是此書於補敘處大率無閑筆漏筆。)¹⁸⁾

한편 가보옥이 巧姐에게 《烈女傳》을 지도하는 장면에서 도학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제92회), 거문고를 타서 부귀와 수복을 얻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거문고가 좋은 것은 못된다고 임대옥에게 말하는 장면(제89회), 또 賈政이 郎中으로 승진하여 사람들이 축하하러 온 것을 알았을 때 속으로 매우 기뻐하는 대목(제85회) 등에서 전반부와는 달리 기존질서에 순응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면모를 엿보이는 모순적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¹⁹⁾

주목할 만한 것은 임대옥까지도 전반부와는 사뭇 다른 모순적 태도를 엿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18) 馮其庸, 《八家評批紅樓夢》(文化藝術出版社, 1991). 1992쪽 上欄 眉批.

19) 이와 관련하여 王希廉은 제82회 총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보옥은 팔고문을 혐오하고 경멸하면서도 공명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팔고문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자는 가보옥과 임대옥 두 사람 모두를 뚫을 빌어 고한 뜻을 설파윈는 가보옥(寶玉厭薄八股, 却有意思博取功名, 不得不借作梯階。作者借寶黛兩人口中俱爲道破。)”(馮其庸, 같은 책, 2019쪽 回末評) 이 같은 평어는 고악의 속작을 통해 변경된 가보옥의 모습이 일반 독자들(왕희림을 포함하여 이게 어떻게 인식되었을 지를 가늠케 해준다.

“나 같은 여자에는 비록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어릴 때 오빠가 그 우촌 선생님한테 배울 때 나도 본 적은 있어요. 그 가운데 인정과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청아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비록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 모두 싸잡아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을 듯해요. 하물며 오빠는 공명을 얻어야 하니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 않겠어요?(我們女孩兒家雖然不要這個, 但小時跟着你們兩村先生念書, 也曾看過, 內中也有近情近理的, 也有清微淡遠的, 那時候雖不大懂, 也覺得好, 不可一概抹倒, 況且你要取功名, 這個也清貴些.)”(제82회)²⁰⁾

과거공명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가보옥이 특별한 동질감을 느껴왔던 임대옥의 입에서 팔고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가보옥의 과거공명이 거론되는 의아스런 장면이다. 임대옥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그녀에 대한 가보옥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고약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가보옥이 과거공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과감한 작업을 단행했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82회와 제84회에서 가보옥이 각각 가대유와 賈政으로부터 팔고문을 지도받는 장면이 많은 지면을 들여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청소설 가운데 과거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거나 묘사되는 경우는 다반사이지만, 이처럼 작품 가운데 실제 팔고문 내용과 더불어 그에 대한 비평과 작법에 관한 문제가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한다. 이 점만 보더라도 고약은 과거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84회에서 姚變은 “賈政의 한차례 강론을 들어보면 확실히 팔고문의 명수이니 학정의 직분을 맡는 데 손색이 없다.(聽政老一番議論, 的是制藝中老作手, 可不負學政一使矣.)”²¹⁾고 평하고 있는데, 이는 고약의 팔고문에

20) 이 대목에서 張新之는 다음과 같은 평어를 남기고 있다. “직접 가우촌을 언급하여 작품의 근원을 짚어주고 있다. 위로는 작품의 서두를 상기시키고 아래로는 결말에 닿으니 120회 작품 전체가 팔고문과 연관되는 셈이다.(直提一假, 入夢之因, 上追開首, 下抵結末, 百廿回書都入入股.)”(馮其庸, 같은 책, 2001쪽 夾批) 임대옥의 태도 변화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우촌의 팔고문 교육과 임대옥의 팔고문 평설, 그리고 가보옥의 거인 급제(‘결말’이란 표현은 임대옥이 가보옥의 과거공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짐) 등을 하나로 꿰어 작품 전체에서 팔고문이 가지는 맥락적 의미를 지적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대한 조예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지적이라 할 것이다.

고악의 세심한 안배에 힘입어 제84회에서 가보옥은 賈政이 흐뭇해 할 만큼 이미 팔고문 실력을 제법 갖춘 것으로 묘사된다. 이에 제97회에 가서는 賈政이 가보옥이 반드시 향시에 참가하도록 엄명을 내리기 시작하며, 가보옥(과 가란)이 향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監生 자격을 사두는 등 제119회에서 가보옥이 거인에 급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제 이처럼 과거문화에 대해 조설근과는 자못 다른 경향을 보이는 속작자 고악에 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고악은 1788년에 50세의 고령으로 거인이 되기 전까지 수십 년간 서당 훈장으로 팔고문을 지도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일찍이 《蘭墅文存》과 《蘭墅十藝》라는 팔고문집을 만들어 지인들의 호평을 담은 題咏을 두루 구해 수록하고 자평까지 실을 만큼 자신의 팔고문에 대해 매우 자부했던 인물이다. 또 자신의 문집인 《高蘭墅集》에도 진사급제 답안 등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팔고문 3편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蘭墅十藝》는 그가 진사에 급제한 후 이미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펴낸 것이라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팔고문을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팔고문에 대한 고악의 남다른 애호와 자부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²²⁾

고악은 50세가 되어서야 거인에 급제하고 이후 7년이 지난 57세에 비로소 진사에 급제했는데, 그가 남긴 詩文에는 잇따른 과거시험 실패에 대한 절망과, 공명에 대한 갈망, 그리고 끝내 급제했을 때의 무한한 기쁨 등이 곳곳에 배어

21) 馮其庸, 같은 책. 2056쪽 眉批.

22) 吳世昌, 같은 책. 654-660, 670-673쪽 참고. 한편 吳世昌은 夢覺主人의 <石頭記序>가 있는 夢本(甲辰本)의 정리자 및 서문의 작자가 고악일 것으로 추정하면서(418-425쪽), 그 서문이 팔고문의 章法으로 지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677쪽). 그의 추정대로 이 서문이 고악이 쓴 것이 확실하다면, 이 또한 고악의 팔고문 애호, 고악에 대한 팔고문의 깊은 영향을 보여주는 분명한 보기가 된다. 참고로 楊廷福의 《清人室名別稱字號索引》에서도 몽각 주인을 고악으로 소개하고 있다.(林冠夫, 《紅樓夢版本論》, 文化藝術出版社, 2007. 182쪽) 그러나 설사 고악이 쓴 서문이 아니라 해도 역시 과거문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에 틀림없다.

있다.²³⁾ 程甲本の 출판은 그가 거인에 급제하고 진사 시험에 실패했던 1791년의 일이나, 그의 속작은 그가 거인에 급제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창작능력은 차치하고라도 공명옥이 남다르고, 팔고문을 유독 좋아하며 자부하였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거업을 지도해왔던 그의 정신세계가 팔고문 따위는 경멸했던 조설근의 그것과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또한 그의 속작에 자신의 공명옥과 과거공명관, 팔고문에 대한 시각과 관심 등이 상당부분 개입되는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고악 개인의 성향 외에 인쇄출판을 통해 형성될 거대한 독자층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곧 과거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과거공명이 당시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최고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적 분위기가 고악이란 인물을 매개로 속작에 개입, 투사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악의 속작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팔고 과거제도에 대해 고악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작품 속에서 팔고 과거제의 이상적 실현을 지향하는 경향성으로 외화되고 있다. 가령 脂本 제36회에서 보옥은 설보차와의 설전 끝에 사서 외의 책을 다 불태우는데, 程本은 이 대목을 삭제하여 고악이 가보옥의 그러한 행위를 매우 불경한 행위로 인식했음을 엿보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보옥이 태워버린 책들이 다름 아닌 팔고문집류일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²⁴⁾ 모범적인 팔고문 자체, 나아가 팔고 과거제도에 대한 고악의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脂本 제78회에서 가보옥이 <부용여아뢰>를 짓기에 앞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명만을 위한 글쓰기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앞 인용문 참고) 주로 팔고문을 겨냥하고 있는데,²⁵⁾ 程本에서 이 대목을 뺀 것 역시 팔고문에 대한 속작자의 긍정적 시각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제78회에서 가환과 가란이 시를 지을 때도 늘 팔고의 법에 매이는 것처럼 따분하고 무디었다는 脂本의 언급도

23) 이와 관련해서는 吳世昌의 같은 책, 660, 664, 672쪽을 참고할 수 있다.

24) 吳世昌, 같은 책, 361쪽 참고.

25) 吳世昌, 같은 책, 361쪽 참고.

程本에서는 삭제되고 있는데, 이 또한 팔고문 쓰기가 일반 詩文 등의 글쓰기에 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부정적 평가를 부인함으로써 팔고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또 앞서 인용했듯이 임대옥이 팔고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장면은 팔고문에 대한 속작자의 긍정적 시각을 비교적 분명하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제84회에서 가정이 가보옥의 작문을 지도하면서 기성 팔고문을 모방하지 말고 새로운 뜻으로 작문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이상적인 팔고 거업에 대한 추구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제120회에서 보옥이 7등으로 거인에 급제한 글이 황제가 보기에 남달리 칭신하고 특별한 대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대목은 바로 이러한 경향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기에도 역시 팔고 과거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깔려있다. 한편 제85회에서 가정이 지방의 學政으로 일할 때 처사가 공평하여 모든 생원이나 童生들이 탄복했다고 하는 대목의 경우, 공정하고 이상적으로 관리되는 과거제도의 긍정성을 부각시키려는 속작자의 의도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악의 속작은 원작과는 사뭇 다른 경향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작품 가운데 과거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을 더 많이引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팔고 과거제도에 대한 속작자의 보수적인 시각이 크게 개입되어 원작되었바래 취지와 경향성이 상당부분 희석되거나 변질되어 작품의 사상적 가치를 저하시킨 면이 없지 않대한 속러나 고악 속작의 문학적 성패와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현상이 팔고 과거제가 양산한 전형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고악 개인의 성향, 나아가 과거문화가 팽배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자연스런 습합이었다는 맥락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6) 여기서 판본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乾隆抄本百廿回紅樓夢稿》(夢稿本 또는 楊本)의 존재인데, 이 판본의 정리자 및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본고에서는 건륭초본 가운데 墨筆 수정 이전의 原抄本 정리자가 고악일 것으로 보는 吳世昌의 견해를 따른다.(이 문제에 관해서는 吳世昌의 같은 책, 680, 685쪽 등 참고.)

4. 傳播와 評點, 續書의 문제

지금까지 《홍루몽》과 과거문화의 관계를 주로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시야를 좀 더 확대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해 볼 여지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程本의 출판과 고악 속작의 영향, 평점 및 속서 등과 관련해서 각각 간략한 고찰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程偉元이 程本을 탄생시켰던 배경에는 과거시험이 일정한 매개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위원은 원래 江蘇 長洲 사람으로, 乾隆 37년(1772)에 회시에 참가하기 위해 북경에 왔다가 과거에 몇 차례 낙방하자 관심을 전환하여 『홍루몽』 필사본을 찾는 데 주력하게 된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홍루몽》 초기 필사본을 구하게 된 그는 고악을 초빙하여 공동으로 程甲本(1791)과 程乙本(1792)을 정리, 출판한다.²⁷⁾ 程本은 깔끔하게 인쇄되고 이아가기 완전했던 까닭에 출판된 후 곧 천하를 풍미하게 되는데, 결국 『홍루몽』의 가장 완전한 내용을 담은 최초의 인쇄본이 과거문화와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탄생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자못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홍루몽》의 중요한 필사본 가운데 하나인 舒元煒序本(간칭 舒本)도 杭州 사람인 舒元煒, 舒元炳 형제가 건륭 54년(1789) 회시에 응시하기 위해 북경에 왔다가 낙방하고 북경에 머물면서 이 판본에 서문을 쓰고 題詞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북경에서 장서가로 추정되는 筠圃主人이 《홍루몽》의 새 필사본을 만드는 일에 초빙되어 교감 작업을 도운 후 서문 등을 써주었던 것이다.²⁸⁾ 이 역시 《홍루몽》의 전파와 과거문화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작은

27) 이상 胡文彬, 《夢香情痴讀紅樓》(山西教育出版社, 1998), 258-9, 266, 316쪽 참고.

28) 林冠夫, 《紅樓夢版本論》, 文化藝術出版社, 2007. 309-315쪽 참고.

고리인 셈이다.²⁹⁾

다음으로 평점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程本 출판 이후 《홍루몽》은 많은 비평가들의 다양한 평점본을 낳게 된다. 그런데 그 중 가장 널리 유행했던 王希廉, 張新之, 姚燮 三家的 평점만 훑어보아도 그 가운데 팔고문 문법에 기초한, 또는 팔고문 문법과의 친연성을 보이는 비평 내용 또는 평어들이 다량 산재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팔고문이 지향하는 문법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에서 자구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다듬는 것에 이르기까지 글 전체를 치밀하게 조직하여 일이관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청시대에 文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팔고문 비평의 이 같은 문법 관념은 여타 장르의 비평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金聖歎을 대표로 하는 소설 평점 역시 이 같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교하고 주밀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김성탄의 문법 관념은 이 같은 팔고문법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그러한 소설비평은 또 다시 후대 소설평점의 본보기가 되었는데,³⁰⁾ 《홍루몽》 평점에 보이는 문법 관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홍루몽》 평점의 문법 관념은 우선 작품의 전체적 구조에 관한 평어들이 서 엿볼 수 있다.

《紅樓夢》 120회를 20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비로소 구조의 층차를 알 수 있

29) 《홍루몽》의 전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것은, 건륭 연간에 楊畹耕이 80회본 석두기와 120회본 《홍루몽》을 구한 후 너무도 좋아하여 향시 시험관으로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과거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 福建에서 미담으로 전해졌다는 일화이다.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乾隆庚戌秋, 楊畹耕語余云: '雁隅以重價購鈔本兩部: 一爲《石頭記》八十回, 一爲《紅樓夢》一百二十回, 微有異同. 愛不釋手, 監臨省試, 必攜帶入闈, 閩中傳爲佳話.' 周春, <紅樓夢記>, 《閱紅樓夢隨筆》, 朱一玄, 《紅樓夢資料匯編》, 南開大學出版社, 2001, 565쪽.) 《홍루몽》의 초기 전과 상황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기록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과거시험의 시험관이 매번 시험장에 《홍루몽》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행위 자체의 상징성, 나아가 그것이 한 지역의 미담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글공부를 하는 젊은 舉子들에게 《홍루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예기는 하나, 이 역시 과거문화와 《홍루몽》의 전과 관계를 엿보게 해주는 일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0) 줄고, <《儒林外史》評點의 구조론 試探 — 八股文法과의 相關性 탐색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제26집, 2007, 9.) 참고.

다. 제1회가 첫 번째 단락으로서 창작의 緣起를 말하고 있으며, 팔고문의 起講, 傳奇의 楔子와 같다. 제2회는 두 번째 단락으로……팔고문 중의 起股와 같으며 제목의 실마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제5회는 네 번째 단락으로서, 『홍루몽』 전체의 강령이며……제120회는 21번째 단락으로서 『홍루몽』 인연의 시말을 총결한다. 이는 작품 전체의 대단락이다……몽口《紅樓夢》一百二十回, 分作二十段看, 方知結構層次. 第一回爲一段, 說作書之緣起, 如制藝之起講, 傳奇之楔子. 第二回爲第二段……如制藝中起股, 點清題目眉眼, 才可發揮意義. ……五回爲四段, 是一部『紅樓夢』之綱領……一百二十回爲第二十一段, 總結『紅樓夢』因緣始末. 此一部書中之大段落也……)(王希廉, <紅樓夢總評>)³¹⁾

이 작품은 또 전체적으로 세 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는데……이것은 또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작품의 거시적 구조이기도 하다.

……

작품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마치 상산의 뱀이 수미상응하듯 암시와 복선들이 깔려 있어 머리카락 한 가닥만 잡아당겨도 온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공교함이 있다.(是書又總三大支……是又通身大結構. ……觀其通體結構, 如常山蛇首尾相應, 安根伏線, 有牽一發全身動之妙.)(張新之, <紅樓夢讀法>)³²⁾

이 회는 이후 전체 이야기 전개의 발단이 되는 부분이며, 제116회는 작품 전체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귀결되는 대목이다. 이 회 이전의 4회는 작품의 緣起이며, 제116회 이후의 4회는 이야기의 여파에 해당한다.(此回是大開, 一百十六回是大合. 此回以前之四回是緣起, 一百十六回以後之四回是餘波.)(姚燮, 제5회 回末評)³³⁾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모두가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20회본 《홍루몽》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그 구조적 짜임새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작품 전체를 단락으로 나누어 그것들이 작품 전체의 짜임새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왕희렴의 경우 작품의 일부 단락 구분을 직접적으로 팔고문의 단락에 비유한 점이 눈에 띈다.³⁴⁾

31) 馮其庸, 같은 책, 1-2쪽.

32) 馮其庸, 같은 책, 76쪽.

33) 馮其庸, 같은 책, 134쪽.

34) 한편, 姚燮 평점 가운데 다음 대목 역시 작품의 한 대목을 팔고문의 한 단락에 직접적으로 비유한 평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가족 연회를 상세히 묘사하는 대목은 필치가

이밖에 3가의 평점에는 다음과 같이 소위 ‘문법’ 또는 글의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나 표현들이 적잖게 눈에 띈다.

文法, 章法/ 破題, 入題, 出題, 點題, 引題, 題眼/ 主腦, 綱領, 提綱, (大)關鍵, 大關節, 要領, 主骨, 着眼處/ 伏線, 伏筆, 伏, 伏根, 伏後, 伏案, 埋根/ 過脈, 過接/ 針線縝密, 層次井然, 章法井然, 血脈貫通, 謀篇整嚴, 筆法周密, 遠針近線絲絲入扣, 通體之嚴整/ 首尾相應, 草蛇灰線/ 兩相對照, 兩兩對照, 遙遙相照, 遙遙呼應, 遙遙照應, 遙遙觀照, 隱隱觀照/ 收拾, 作結, (大)結束, 結穴, 大結, 總束, 總括全書 등등

이 같은 말들은 명청시대 팔고문 평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용어의 공유현상을 통해 양자 간의 친연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暗暗補寫法’, ‘文章竝疊類敘法’, ‘文章結構法’, ‘疏密相間之法’, ‘結尾出題點睛法’ 등과 같이 ‘—法’의 형식으로 문장 서술 기법을 지적한 예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평어들 역시 ‘문법’ 관념을 반영하는 것들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三家의 평점 중에서도 왕희렴의 평점은 諸家の 평점 가운데 작품의 구조 분석에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왕희렴 평점은 앞서 인용한 작품 전체 구조에 관한 분석뿐 아니라 回評을 통해 작품의 부분 부분을 모두 일정 수의 단락으로 나누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비평을 가하고 있다.³⁵⁾ 왕희렴의 경우 집안에 私家 출판의 전통이 있었던 관계로 다분히 출판상의 관점에서 평점에 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⁶⁾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평점본은 일종의 문장 읽기 또는 글쓰기 학습서로서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글공부에 관심을 가진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했

분명하며 앞부분에서 그린 첫날 왕공들을 초청한 연회 대목과 한 쌍의 고(股)를 이루고 있다. (鋪敘家宴一節, 用筆清晰, 與前第一日宴王公文字作一對股.) (제71회 眉批). 馮其庸, 같은 책, 1749쪽.

- 35) 張新之 역시 회평을 통해 빈번히 작품의 단락을 상세하게 나누며 텍스트의 짜임새에 대한 분석적인 구조론을 펼치고 있고, 姚燮 또한 주로 眉批를 통해 각각의 세부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고 전환되는지 등의 짜임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36) 劉繼保는 왕희렴의 집안에서 일찍이 《三國志演義》의 한 상업적 판본을 출판한 일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이 같이 지적하였다. 《紅樓夢評點研究》,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161쪽 참고.

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³⁷⁾ 그의 평점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구조론이나 문법론은 이 같은 맥락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삼가 평점 모두에서 팔고 문법적 요소들이 확인되는 바, 이들 모두가 많은 적든 당시 과거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삼가 평점 외에도 현존 《홍루몽》 평점 모두가 기본적으로 작품 구조를 중시하여 사건 구성의 논리적 관계나 전후호응, 나아가 소설 전체적 구조의 완성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³⁸⁾ 이런 점에서 《홍루몽》 제가의 평점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자장의 영향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팔고문법 관념의 영향이 평점가들 자신의 의지대로 쉽게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이미 당시 지식구조 속에 뿌리박혀 거대한 관성적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점가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같은 문장관에 따라 작품을 읽고 비평을 생산할 만큼 팔고문법이 그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팔고문법의 영향을 받은 소설 비평의 관습이 한 몫을 하였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당시의 문화적 특징에 길들여진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비평가들의 의식적인, 또는 부득이한 선택이란 면도 있었을 것이다.³⁹⁾ 《홍루몽》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구조와 분위기 가운데서 비평되고, 또 그러한 비평이 하나의 텍스트로 일체화되어 널리 전파되고 읽혀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루몽》의 속서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해볼 수 있다. 《홍루몽》의 출현은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 수많은 속서들이 출현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⁰⁾ 그런데 대다수의 주요 속서들이 거의 하나같이

37) 이와 관련해서 명청대에는 소설과 팔고문의 일정한 유사성으로 인해 소설이 팔고문 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또 그러한 인식이 소설의 전파에 긍정적 영향을 낳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黃強의 《八股文與明清文學論稿》(上海古籍出版社, 2005) 제12장을 참고할 수 있다.

38) 劉繼保, 같은 책, 129-130쪽 참고.

39) 줄고 <명청소설과 八股文> (《중국소설논총》 제20집, 2004, 9.)¹⁾ 참고.

40) 수많은 속서들의 출현 역시 기본적으로 程本の 출판을 계기로 한 인쇄본의 광범위한 전파가 그 토대가 되었다는 점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大團圓模式’을 보이면서 가보옥(또는 그 후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고, 작품 전체적으로 功名利祿의 관념을 선양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後紅樓夢》(逍遙子), 《續紅樓夢》(秦子忱), 《綺樓重夢》(王蘭沚), 《紅樓復夢》(陳少海), 《紅樓夢補》(歸鋤子), 《紅樓幻夢》(花月痴人), 《紅樓夢影》(顧太清), 《續紅樓夢稿》(張曜孫) 등 주요 속서들이 모두 그러하다.⁴¹⁾ 그 가운데 일부 속서들은 여러 차례 번갈 될 만큼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⁴²⁾ 이는 당시 수많은 독자들(속서의 작자를 포함하여)의 과거공명에 대한 추구 심리 또는 중시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홍루몽》이 바로 이러한 심리와 관념을 지닌 절대다수의 독자들 가운데서 향유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인 셈이다. 앞서 언급한 고악의 속작 태도 역시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루몽》은 청대의 과거문화와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작품 자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문화는 크게 과거공명과 거업에 대한 가부의 중시 관념과 팔고 과거문화에 대한 가보옥의 비판적 태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양자는 다시 하나의 갈등 축을 이루며 작품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41) 가보옥 또는 그 후신의 과거급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작품에서도 가보옥이 賈政의 세습 직을 이어받는 다든지(夢夢先生의 《紅樓圓夢》), 가보옥의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재상이 된다든지(海圃主人의 《續紅樓夢》) 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속서들이 세속적인 공명이록의 관념을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다.

42) 이상 《홍루몽》의 속서 관련 문제는 趙建忠의 《紅樓夢續書研究》(天津古籍出版社, 1998)과 최용철, <홍루몽의 속서와 속홍루몽의 연구>,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신서원, 2007)을 참고함.

고악의 속작이라는 요인은 작품 가운데 과거문화 관련 요소가 크게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고악이 팔고 과거제도가 낳은 전형적인 지식인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간접적으로는 과거문화에 관한 당시 일반 독자들의 관심이 투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인쇄본의 출판과 전파, 평점, 속서 등 작품 외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도 많은 적든 과거문화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문화라는 컨텍스트를 제외하면 오늘날 《홍루몽》의 면모는 물론이거니와 현대 이전의 광범위한 수용과 영향 등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만큼 양자는 다각적이고도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악의 속서와 程本의 출판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전파와 영향 산생 과정은 바로 《홍루몽》이 과거문화 속에서 쓰여지고, 충돌하고 전파되고 수용되는 맥락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홍루몽》은 거대한 과거문화의 자장 가운데서 탄생되고, 그 성서 및 전파 과정에서 속작, 평점, 속서 등을 통해 다시 과거문화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수많은 담론을 생산해왔다고 할 터이다.

< 參考文獻 >

- 《脂硯齋重評石頭記(庚辰本)》,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古本小說集成).
- 《乾隆抄本百廿回紅樓夢稿》,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
- 《紅樓夢》(程甲本), 《續修四庫全書》1793-1794,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
- 《紅樓夢》(程乙本), 出版社 影印本.
- 馮其庸, 《八家評批紅樓夢》, 文化藝術出版社, 1991.
- 王希廉·姚燮 共評, 《增評繪圖大觀瑣錄》,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 曹雪芹·高 鶚, 《紅樓夢》, 人民文學出版社, 2003.
- 曹雪芹·高 鶚 지음, 최용철·고민희 옮김, 《홍루몽》, 나남, 2009.
- 趙建忠, 《紅樓夢續書研究》, 天津古籍出版社, 1998.
- 張錦池, 《紅樓夢考論》, 黑龍江教育出版社, 1998.
- 李廣柏, 《曹雪芹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8.

- 吳世昌, 《紅樓探源》, 北京出版社, 2000.
- 劉繼保, 《紅樓夢評點研究》,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 林冠夫, 《紅樓夢版本論》, 文化藝術出版社, 2007.
- 최용철,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신서원, 2007.
- 楊連民, 王凌雲, <試論《紅樓夢》的科學觀>, 《山東社會科學》, 2004, 第7期.
- 韓惠京, <王希廉 評點을 통해본 《紅樓夢》의 構成(1)>, 《中國小說論叢》 第4輯, 1995.
- 韓惠京, <평점가들이 본 《紅樓夢》 서사의 인과관계>, 《中國小說論叢》 第26輯, 2007.
- 韓惠京, <문화현상으로 바라본 清代의 《紅樓夢》 열풍>, 《中國小說論叢》 第30輯, 2009.

< 中文提要 >

本文從科學文化的視角出發, 對《紅樓夢》進行了多方面的考察。《紅樓夢》中反映着不少的科學文化因素, 這些因素主要集中在賈府對科學功名及舉業的重視觀念與賈寶玉對八股科舉文化的批判態度上, 而且這兩方面又在小說中構成一個主要矛盾。另一方面, 作為八股迷的高鶚之續作使小說中的科學文化色彩更加濃鬱, 這一點在科學文化與《紅樓夢》的關係上是個不可忽略的問題。不僅如此, 還在《紅樓夢》的出版和傳播、評點、續書等作品外部的諸般層面上, 可以發現和科學文化的一定的關聯性。因此, 如排除科學文化這一上下文, 今天《紅樓夢》的面貌以及現代以前廣大的接受和影響等可以說都是難以想像的。尤其, 由高鶚的續作和程本的出版引起的廣範傳播和影響即是《紅樓夢》在科學文化中形成、衝突、傳播、接受的過程本身。在這一點上可以說, 《紅樓夢》誕生在科學文化的磁場中, 而且在其成書和傳播過程中, 通過續作、評點、續書等又產生了圍繞着科學文化的許多話語。

關鍵詞: 紅樓夢、曹雪芹、科學文化、八股文、高鶚、續作、傳播、評點、續書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9.29	2010.10.30	2010.11.3	2010.11.8	2010.11.30